

보도설명자료

(‘15. 10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메가FTA시대, 무역조정지원 유명무실
(‘15.10.14, 이투데이)

1. 기사내용

- ☐ 메가FTA에 대비하여 FTA 피해보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이 유명무실한 실정임.
- ☐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신청 및 지정 건수가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융자 및 상담 예산지원 실적도 미흡함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그 동안 정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이용 신청의 확대를 위해 지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*해왔으며 제도안내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음.

* (‘07) 25%이상 생산감소 피해발생 → (‘11) 20% → (‘12) 10%

- ☐ 아울러 절차 간소화, 기업부담 완화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임(‘15.5.8 국회 제출)
 - 절차 간소화 : 산업부와 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절차를 산업부로 일원화함.
 - 기업부담 완화 :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, 무역조정계획 착수·완료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함.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정창현과장, 김민정사무관(044-203-4122)